



발(足)



김정자 언론인 본지는설위원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의 저서<작은 인간> 본문은 '태초에 발이 있었다'로 시작된다. 직립한 인간의 발은 달리기로 말하면 다른 짐승보다 빠르지 못해도 마라톤처럼 지구력을 가지고 다른 동물들 앞지를 수 있다. 이유는 달릴 때 오르는 체온을 땀샘에서 나오는 땀을 스쳐지나가는 바람으로 증발시켜 냉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털이 거의 없...

아무튼 '태초 인간의 발'은 손과 두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후대에 '걷는 것은 철학이다'란 유명한 말을 만든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파를 걷는 학파, 즉 '소요학파'로 부른 것은 걷는 것이 생각하는 능력을 높여 준다는 발견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철학자 칸토르 음악가 베토벤도 산책을 일과로 삼아 편지들을 썼을 것이다. '생각이나 영감을 걸을 때 떠오른다'면서. 그 '발'이 요즘 뜨고 있다. 건강을 위해 발마사지를 권하고 발마사지 기계가 발명되어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 발마사지가 고대중국에서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요즘 들어 중국 동남아 등의 관광 상품으로 큰 인기를 누리는 추세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성업이다.

신체 맨 아래쪽을 버티고 있어 더럽고 냄새나는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던 발을 깨끗이 씻기고 약물로 또 한번 씻기고 30분 넘어 느긋이 마사지를 받으면 그 '신분상승(?)'에 불만 없이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발에게 한번 물어보면 '적당히 걸고 적당히 달리는 것으로 신체와 사고(思考)에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할 것 같다.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호들갑에 어리둥절하면서.

불광사, 외부감사 자청



서울 석촌동 불광사(주지 지칭)는 199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재정감사를 외부 회계사에게 맡기고 결과를 신도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사찰이 재정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광사가 외부감사를 자청하고 나섰다 소식은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불광사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물론 불광출판사, 불광유지원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장군속매

북한산을 뚫으려는 기업은?



대선자금과 관련,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관동도로와 연관된 대기업들의 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공사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금호 그룹의 경우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LG그룹 최고 경영자도 조만간 같은 처지에 놓일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 관계자는 "북한산을 뚫으려는 기업들의 입보"라고 입질을 냈다.

'자유주의·자본주의의 승리로 역사는 끝났다'는 후쿠야마의 예언이 맞는지 틀리든지 간에, 오늘날 세계는 급속히 자유주의로 수렴해간다는 사실에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는 '자유주의의 보편화'라는 세계이념이요,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보편화된 것은 현실이 아니라 이념이다. 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자본의 이동 및 상품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편화하라는 압력이다. 자본과 상품이 세계화될수록 거주, 이주, 노동, 인류의 보편적 복지는 더욱 반(反)세계화 한다.

인권의 무제한적 보편성에 비추어 보면 한국가 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경은 여전히 넘기 어려운 벽이며, 세계 노동시장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다. 자유주의를 만들어낸 서구의 모든 나라들은 예외 없이 까다로운 이민 절차와 심사 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며, 불법 이민의 방지와 추방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인류 보편의 자유'는 글자 그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문화 특수적 자유'이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그들도 인류 보편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닐지라도, 우리



불자 세상보기

구승호

동국대 교수·철학

“쓰레기는 누가 치울 것인가”

가 기피하는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그들로서는 돈벌기 쉬운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일자리 많은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살아 있는 우리가 조성한 환경이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역시 수혜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하기 좋은 환경'을 독점하려는 것은 인종적 이기주의(소비니즘)라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거기에는 명백한 자기모순이 숨어 있다.

우리는 일련이 재일교포들에게 참정권을 불허하는 것, 거주 등록시 지문날인 제도를 시행하는 것, 미국이 입으로는 가장 친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까다로운 입국 비자를 요구하는 것, 중국 공안이 처절한 실존적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을 강제 소환하는 것에 대하여 신성한 인권의 보편성을 거론하면서 분노한다.

이처럼 보편적 인권을 숭상하는 우리는 4-5세대 동안 이 땅에 살아온 화교들에게 자장면집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거주·교육·재산 취득 등 온갖 제한과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몇 년을 살았던 모든 외국인인 3-6개월에 한번씩 거주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외국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동포와 사할린 동포

의 영구 귀국을 제한하고 있으며, 탈북자의 입국을 거부하고, 우리가 더러워하는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냉대하고 멸시한다. 하물며 탈북한 국군포로조차도 훈장은 고사하고, 재입국마저도 기꺼워하지 않는다.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리문제로 외교통상부와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물론 그들은 외국인이다(중국동포 역시 중국국적자들이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규약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당연하다. 칸트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방인을 환대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낯선 곳에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16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기에 앞서 '내일 아침 쓰레기는 누가 치울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35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일자리를 침탈한 노동이민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3D 업종이 세계화되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로 수출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들이 한국에 들어 온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이동한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마당

[현대불교에 바란다] 전남 무안 이용춘

사부대중의 윤회유 역할 해주길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사. 전에 있던 부산교도소와 달리 이곳은 불교를 접할만한 환경이 매우 빈약하다. 법사단도 없고, 불법을 공부할 만한 변변한 교재도 없다. 그렇지만 이곳의 법우들은 불교방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일년에 한번씩 삼천포로 가는 등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곳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항상 보시고 베풀어주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분은 이 곳 목포교도소 수용자 대표인 총 반장이다. 일년 동안 총 반장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산부처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총 반장은 교도소 밖에 가족이 없는 수용자들에게 담요, 양말, 옷 등을 보시고 있다. 이 분은 생활이 어

려운 수용자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나 하나도 살기 힘든 교도소란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현대불교>가 교도소 밖의 스님이나 불자들이 이 곳 재소자들 간에 자매 결연을 맺는데 도움이 되는 중간자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현대불교>가 부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곳 중생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

부처님오신날부터 광복절까지 백일기도를 했고,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번씩 1080 점회를 하면서 백일기도를 할 생각이다.

[현대불교를 읽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양대웅

'지상백고좌' 보고 마음의 병 고쳐

불교 공부할 하던 중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뜻에 대해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 정신의 병을 앓고 있었다. 윤회가 마음을 떠나서 마음 밖에 별도로 있는 것인지 전전긍긍하던 차에 정신의 고뇌에서 방황하는 정신병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현대불교>의 '지상백고좌'에서

추천 현자사 만한 큰스님의 법문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 모든 의문이 풀리고 병이 씻은 듯이 되었다.

만현 큰스님과 <현대불교>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만현 큰스님을 찾아 읽고 큰 절로써 감사의 예를 올려야 하겠으나, 지면을 통해 두손 모아 합장의 예를 올린다.



성오스님(미국 뉴저지 원적사 주지)

미주 한국불교 관련 기사를 읽고

최근 불교언론들이 미주 한국불교의 현실을 조명하는 기사들을 보도했다. 이 기사들이 미주 불교의 현실을 본국 불교계에 소개하는 큰일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몇 가지 오해의 소지와 분명치 않는 부분 또한 남기고 있기에 여기에서 밝히고자 한다.

첫째 미주 한국불교와 한국기독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미주 한국기독교는 거대한 기독교 사회란 자산을 가지고 출발했다. 한국

불교가 넓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한인들은 교회공동체를 중심으로 직장 및 이민생활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신앙심을 발전시켜왔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뒤늦게 들어온 불교가 한인들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 및 포교의 지평을 열어 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둘째 한국불교의 정체성 부재가 미주 불교에서도 그대로 반영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한국 불교는 '통불교'라고 칭한다. 이런 규정은 포괄적이란 장점도 있지만

만 한국 불교를 서양에 전달하기에 불분명하다는 약점도 있다. 왜냐하면 서양인들의 문화나 사고방식은 동양의 문화와 달리 논리적, 분석적이기에 동양의 종합적, 함축적인 사상을 이해시키기 어렵다.

셋째 미주한국 불교는 본국의 훌륭한 스님과 종단의 후원을 필요로 한다. 이제 다시 거듭나고 있는 미국 내 한국불교는 본국의 영향을 받으며 미국에 새로이 적응하는 시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인들은 물질로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정신적인 공

황에 빠져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동양사상에 대한 관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상류층과 지성인 중심으로 불교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사찰들이 속속들이 건립되고, 사찰에 와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수행을 하고 있다.

이에 한국불교는 교포중심의 의식불교나 의례적인 행사에만 머물지 말고 한국어로 못하는 교포 2세 및 현지인들을 포교하고 수행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스님 및 포교사들을 많이 배출해야 할 것이다.

거대한 기독교와 단순비교는 무리

해외포교 방안 체계적 정립 필요

미국인들은 물질로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정신적인 공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도교사 박봉순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총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형: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기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형: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기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11월 셋째주, 넷째주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도 가능,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파동명상수련으로 수많은 강력사건(유괴살해,강도,강간)을 해결하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아 제 58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본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